English Worship Service

Pastor: Daniel J. Kim, Ph.D. 11:15 a.m @ Westminster Hall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Team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Representative Prayer	Deacon Ryu, SangCheol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Song	Together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al Reading 1 Samuel 1:1–20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Way of Birthing"	Pastor
* Hymn 279 (337)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 Way of Birthing "

1 Samuel 1:1–20

We have now entered the Christmas season. Christmas, of course, signifies the humble beginning of the human life of Jesus Christ. This so-called "incarnation" of Christ is indeed a mystery actualized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eans of virgin birth. Here, Mary would be the person specially chosen to birth our Lord into this world.

Today, as we begin our study of the character of Samuel, we' ll focus on his mother, Hannah, who was specially chosen to birth this great prophet into this world. Among many parallels between Hannah, the mother of Samuel,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the most significant is the fact that these humble, unassuming women were God' s instruments in birthing two of the greatest figures in the Bible. Today, as we study the birth of Samuel through Hannah, we focus on the conditions required for such birthing. The concept of birthing is relevant to all of us, since we all need to birth something concrete in the Lord, so that our dreams and visions can become a reality. What then are the conditions for birthing such godly vision? First, there needs to be a sort of "holy frustration" in our hearts (vv. 3-8). Hannah' s state of childlessness became the source of her despair and anguish. But her frustration was "holy" because it was caused by God' s hand, and it could be resolved only through God' s work. Such frustration, thus, leads us to engage in earnest prayer (vv. 19-27). Her desperation led Hannah to pray to God most earnestly and persistently, until there was a definite confirmation and assurance in her soul. Afterwards, she simply led a life of trust (vv. 18-20). Basically, she went back home and did the most normal thing. Nothing seems to have changed circumstantially, except that her attitude and outlook of life have radically been transformed. Her face was no longer downcast. She could now surrender all things to God' s hand and completely trust in Him. And in due time, God worked on her behalf, and He allowed Hannah to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great prophet. Like Hannah, then, in our state of "holy frustration," may we be driven to the Lord in earnest and persistent prayer, and may we live out the simple life of surrender and trust in the Lord. And may we witness the Lord bringing forth many wonderful things in our lives, particularly during this season of Christmas.

Announcements

- After worship, please join us for a time of fellowship in Room 104.
- Please join our various study groups held each Sunday:
  - 9:30 am (Room 104) - "Spiritual Leadership" (taught by Pastor Daniel)
  - 1:00 pm (Room 104) - "Gospel of John" (led by Brother Gai)
  - 1:00 pm (2nd floor) - "Esteem in Christ" (led by Sister Cing)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Stephen Wall)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Ⅲ,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어린이 수요예배		오후 7시	603 호
토요꿈나무영어성품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청년 3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1 호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사랑부 예배		오전 10시30분	102 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새가족부	등록필수반	오전 10시	602 호
	직분자필수반	오후 12시40분	
	학습보충반	오전 10시	607 호
	세례준비반	오후 12시40분	
장 년 부(오전)		오전 10시	본 당
장 년 부(오후)		오후 3시30분	702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3호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노정호 천세종 **교육전도사** 최민혁 구본혜 장재원 이재웅 양세라 Gaichuang Panmei, VunZamCing **협동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천 김다니엘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권요셉·조에스더,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랑,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제23권 제49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3년 12월 8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인과율 대 은혜"

("Law of Causality vs. Grace")

■ 창 29:21-30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주인공 장발장의 삶을 통하여 '인과율 대 은혜'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인과율, 즉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율법과, 그 견고한 율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과율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 6:7상)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게을러도 된다는 뜻이거나, 여러 가지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율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진리를 심비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1. 심은 대로 거두는 야곱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방에서 아침에 깨어보니 그의 곁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찍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과 같았습니다. 인과율!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2. 상처 받은 야곱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보다 더 야비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갖은 고생을 다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레아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야곱은 큰 재산과 가정을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서 원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로 그에 상당한 보응도 받았지만,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야곱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대속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 번에 영원토록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은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시는 채찍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키는 사랑과 은혜의 채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맺음말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죄악된 습관이나, 부도덕한 일이나, 불법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인과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인과율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향한 담대한 마음으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유문건 목사	오정수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강진 장로
Ⅲ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최양진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46: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17(구주 강림 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94(10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29:31-30: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헌금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2014년 섬김위원 임명식 ····· 당 회 장
설 교 Sermon····· "공평하신 하나님" ····· 박노철 목사
(God of Impartiality)
* 찬 송 Hymn ·····406(46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 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시 63:3-4····· 인 도 자
찬 송 ·····191(427) / 540(219)··· 다 함 께
기 도 ····· 오민세 집사
성 경 ·····고전 8:8-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결심보다 더 중요한 동기" ··· 설 교 자
특별찬양····· 호산나찬양대
* 찬 송 ·····240(231)·····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 Ⅰ부: 김정희3 권사 Ⅱ부: 김지숙 권사
성 경 ·····마 13:31-33·····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겨자씨와 누룩 비유"·····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 김양언
설 교 ·····박노철 · 서명철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한상은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백송희	윤주일	가브리엘		백송희
Ⅱ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류종기	김현정15	양경실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김정희16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Ⅰ부	호 산 나	서희숙	김윤지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는 호산나찬양대(대장 : 김유경 권사, 지휘자 : 서희숙 권사)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 ◈ ▣ ◈ ▣ ◈ ▣ ◈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 ▣ ◈ ▣ ◈ ▣ ◈ ▣ ◈

교 회 소 식

◈ 모 임

1. 아브라함 선교회 월례회 및 임시총회 / 8일(주) 오후1시50분 903호
2. 기획위원회 모임(교회 장소사용 협의의 건) / 8일(주) 오후2시40분 607호
3. 이미용봉사 송파구 노인복지관 / 10일(화) 오전9시30분 101호
4. 항존직 은퇴자 위로회 / 10일(화) 오후6시 8층(만나홀)
5. 모든 여전도회 총회 / 11일(수) 오후1시 101호
6. 루디아 전도회 월례회 / 11일(수) 수요1부 예배후 802호
7. 마리아 전도회 월례회 / 11일(수) 연합여전도회 후 601호
8. 리브가 전도회 월례회 / 11일(수) 연합여전도회 후 602호
9.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11일(수) 연합여전도회 후 501호
10. 15교구 연합다락방 예배 / 13일(금) 오전11시 602호
11. 전 도 / 8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치삼성, 도곡렉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Ⅰ-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5)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11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한나 전도회(607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스데반회(한티공원)
12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럭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13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14일(토) 오후 2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모세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4. 학습세례식 신청 / 12월 학습 세례식이 12월 15일(주일) 1,2,3부 예배 시 있습니다.
문답총정리는 12월 8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2월 8일(주일) 오후 2시 602호 에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 카페 참조: 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동체 → 세례준비반
5.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이순덕	1교구	사라	김복순	장동규	14-2	마가다락부	인내팀	구본성	교육1국	초등부	신용식
이영하	14-2	마가다락부	인내팀	박영준목사	11교구	교역자		홍재민	교육1국	초등부	안내팀/새평신
박사준	13-8	베드로	화평팀/사랑팀	이진희	11교구	사모		정서현	교육1국	유년부	본인
이명심	13-8	뵈뵈	화평팀/사랑팀	조원용목사	11교구	교역자		조연우	교육1국	유치부	본인
노영실	4교구	뵈뵈	박민숙	이현순	11교구	사모		홍재명	교육1국	유치부	안내팀/새평신
홍준기	3교구	안드레	안내팀/새평신	서준권목사	11교구	교역자		조건우	교육1국	유아부	본인
김성옥	3교구	루디아	안내팀/새평신	유정민	11교구	사모		서예준	교육1국	유아부	본인
양재진집사		교역자		이재홍집사		교역자		조은호	교육1국	영아부	조종화
구제학	13-5	베드로	신용식	이정은	5교구	빌립	황선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경숙	13-5	루디아	신용식	박주원	교육2국	고등부	화평팀/사랑팀				

☜ 앞면에서 계속

6.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7. 의료 상담 / 노제현(안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5068-2874

◈ 결 혼

1. 김찬기 군(10교구 김태삼 집사, 조숙자 권사의 장남)과 박윤희 양(박필규 집사, 김삼숙 집사의 차녀) / 12월 14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 장 례

1. 故 서 엽 집사(서향정 선교사의 부친, 김영호 선교사의 장인) / 12월 4일(수) 별세, 6일(금) 발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향해 과거를 추궁하시거나 미래를 분부하시지 않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다.

이는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베드로를 주님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연약하여 넘어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하향적 사랑을 발견케 된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뜻도 있다.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이듯 받고 싶은 것이다.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자랑 할 줄 알면서 바칠 사랑에 대하서는 둔감할 경우가 많다. 주님은 우리의 상향적 사랑을 기다리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듯 내 양도 사랑하라시는 수평적 사랑도 내포되어 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 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